

곡성군,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연 매출 3억 이하 250명 대상
최대 50만원 오늘부터 접수
2024년 매출액 0.5% 환급방식
“세심한 지원 편성 노력할 것”

전라남도 곡성군이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27일 곡성군에 따르면 28일부터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

업'을 실시한다.
연간 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군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카드 결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매년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

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전남도의 결제 방법 중 카드 이용은 2020년 46%에서 2022년 47.7%로 증가 추세다.
지원 대상은 2024년부터 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곡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를 환급받는 방식이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5월16일까지 3주간이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전남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화순군, 5월9일까지 접수

전라남도 화순군은 다음달 9일까지 '2025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 3개 분야 장학생 신청을 인구청년정책과 평생교육팀에서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남인재육성장학생 선발은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운영하며 신청 자격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전남도 내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생이다.

올해 장학생 선발 신청·접수는 희망하는 장학금 종류에 따라서 2곳 중 선택하여 접수하면 된다.
진흥원이 직접 선발하는 분야는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온라인(www.jntle.kr)으로 접수하고 화순군 추천 분야인 △기회균등(중·고·대학생) △긴급 지원(대학생) △해양에너지(대학생) 분야는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평생교육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추천 인원은 총 12명이다.
기회균등 장학생 9명(중2, 고3, 대4)은 학업 장려금을 지원하며 해양에너지 장학생 3명(대학생)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장학금 지급액은 1인당 중·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이다.
긴급 지원 장학금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한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대학생은 사회복지과를 통한 추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분야별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 또는 전남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jntle.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평생교육팀으로 문의(061-379-3352)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

'5월5일' 어린이 대축제 연다 영광군, 불갑사 야외공연장서 공연·체험마당·푸드존 등 다채

전라남도 영광군은 오는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잔디밭이 넓게 펼쳐진 불갑사 야외공연장에서 '2025년 영광 어린이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체험으로 풍성한 하루가 될 전망이다.
행사 당일에는 디즈니 프린세스 OST로 꾸며진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어린이 인기 캐릭터 '캐치! 티니핑' 포토그리팅, 거리 버스킹(매직, 버블, 벌룬아트쇼), 어린이 DJ 클럽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진다.
행사장 한편에는 13개의 체험 마당과 7개의 푸드존이 운영되며 단순한 관람을 넘어 오감으로 즐기는 진짜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어린이날의 취지를 되새기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지역 사회 분위기를 널리 알리며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봄꽃 축제 꽃강길 전시 연장 화순군, 5월11일까지 운영

전라남도 화순군이 '2025 화순 봄꽃 축제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꽃강길 일원에 전시된 봄축제 관련 주요 전시를 28일부터 5월11일까지 14일간 연장 운영한다.
27일 화순군에 따르면 전시 연장 결정은 꽃강길 상상정원과 음악분수 주변을 중심으로 축제 동안 설치된 봄꽃 조형물과 토피어리, 초화류 등을 통해 방문객들이 봄의 정취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취해졌다.

운영 연장 기간에는 전시장 내 주요 초화류 전시는 물론 관련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도 병행한다.
단 28일은 연장 전시 준비를 위한 정비일로 초화류 교체 보식 및 소규모 시설물, 화분 등을 선별적으로 철수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시가 이루어지도록 재정비할 예정이다.

류창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전시 연장은 화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봄의 아름다움을 조금 더 오래 선사하고자 마련했다”며 “끝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

국가지점번호판 일제 조사 실시 화순군, 망실·훼손·표기 오류 등

전라남도 화순군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5월까지 국가지점번호판의 망실·훼손·표기 오류 등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경찰·소방·산림청 등 기관별로 다른 위치 체계를 통일해서 도입한 위치표시 체계이며 전 국토를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해 문자 2자리와 숫자 8자리로 조합해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다.

국가지점번호판의 관리 및 정비에 시민 안전과 직결되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지점번호판은 등산로 및 해안가, 공원 등 비주거지역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이용되며 구조·구급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소 정보시설물이다.
현재 군에는 등산로, 저수지 등 총 688개소에 국가 지점번호판이 설치돼 있으며 군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조사용 단말기를 활용해 표기 오류, 훼손, 망실, 설치 위치 적합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오는 5월까지 정비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화순=김선종 기자



함평군 함평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직원들이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지붕 개량 공사 시행에 앞서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함평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주거개선사업 활동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7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읍 복지기동대가 지난 18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 중인 가정을 직접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공사까지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복지기동대는 대상자 통보 이후 일정에 맞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동참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사전 현장 확인을 통해 대상 가정을 직접 발굴하고 사업 범위와 일정을 조율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생업을 병행하는 바쁜 일정에도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시간을 내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첫 사례로 주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영남 복지기동대 대장은 “이웃을 위해 복지기동대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 처음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정화자 함평읍장은 “복지기동대는 주민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민간 조직으로 이번 활동은 주민이 주도하는 복지 실현의 모범사례다”며 “행정에서도 적극 동참해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주기적 회의체 운영 협력 강화

안전관리 방안 등 논의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주인호)는 지난24일 영·섬유수도사업단에서 본부 내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건설부서와 운영부서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상생·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영·섬유역본부장을 비롯해 본부 및 현장의 건설사업 담당부서와 시설물 운영관리 부서의 부서장 및 담당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건설사업의 현황과 추진 계획, 건설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현재



영·섬유역에서 노후관 개량과 관로 복선화 등 수도시설 안정화사업을 비롯해 댐 안전성강화 사업,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사업 등 안정적인 물 공급을 목표로 수자원 및 수도 분야에서 총 9개 건설사업(총 사업비 약 6006억원)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사업예산(1007억원)의 53%인 538억을 1분기에 조기집행하며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주요 건설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 관점에서의 협력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초기 단계에서부터 운영·관리 단계까지 건설부서와 운영부서가 협업해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주인호 영·섬유역본부장은 “설계단계부터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각 단계별로 관련부서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물공급체계가 만들어진다”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사업별 정기적인 협력 회의를 추진해 지역 내 물 인프라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